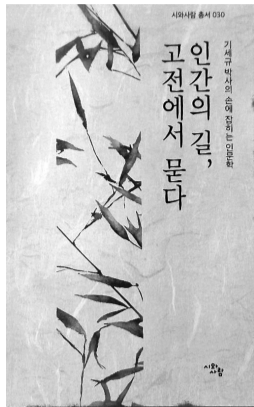


“성현의 가르침 ‘오늘’에 맞게 풀었죠”

고봉 기대승 13대손 기세규 박사
‘인간의 길, 고전에서 묻다’ 펴내
고전 문구에 담긴 삶의 지혜 전해
30일 향교 유림회관 출판기념회



“공자가 제시한 군자의 첫 번째 조건은 화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인부지이 불은 불역군자호(人不知而不懼 不亦君子乎)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다면 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느냐는 뜻이지요.”

을 여름은 예년에 비해 유난히 무덥고 길었다. 어떤 이들은 날씨 외에도 곳곳에서 벌어지는 비상사적인 일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했다. 우리 주변에는 간혹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불같이 화를 내는 이들이 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어려운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광주 임곡동에서 고봉 기대승의 13대손으로 태어난 기세규 박사(광주유학대학 교수)가 고전을 모티브로 한 책을 펴내 눈길을 끈다. ‘인간의 길, 고전에서 묻다’ (시와 사람)는 자칫 딱딱하게 느낄 수 있는 고전 속 문구들을 다양한 실례를 들어 쉽게 풀이하고 있다. ‘기세규 박사의 손에 잡히는 인문학’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성현의 가르침에 시공을 초월한 영속성을 대입

한 것이 특징이다. 기 박사가 고전을 주제로 한 책을 낸 것은 “유교를 중심으로 한 동양고전의 강해방법이 과거와 현대를 관통할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에서 비롯됐다”며 “수천 년 전 가르침이 오늘날에도 삶의 가치를 규정짓고 있는 현대적 상황과 연계해 풀어냈다”고 전했다. 기 박사는 현재 광주유학대학 교수로 시민들을 상대로 고전을 함께 읽고 뜻을 되새기는 공부를 하고 있다. 성균관 광주시분부교육원장과 광주문인협회 한시분과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번 책을 내놓으며 나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는 말에서 그와 한학(漢學)의 관계는 보통의 사람들이 공부하는 그것과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

왔다. 무엇보다 고봉 기대승의 가문이라는 배경이 그를 학문의 길로 이끌었던 듯 싶다. 그동안 그는 “맹자 성선설의 형성 기원 고찰”, ‘유교사상이 조선시대 상도(常道)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등 유학사상과 관련한 다수의 논문과 책을 펴냈다. “어린 시절 고향인 임곡에서 큰 외숙이 서당을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저는 동네 형들을 따라 서당을 다니며 한자를 배우고 한문을 외웠지요. 철이 들면서 집안 어른들로부터 ‘기아들은 고봉 기대승 할아버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학문을 닦고 행실을 바로 해야 한다’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공부는 독학으로 했지만 그 에 비해 학문하는 과정은 우연이자 필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책은 ‘사람은 왜 배워야 하는가’, ‘고전! 사람 사는 법에 대하여’, ‘용서는 무엇인가’, ‘올바르게 얻은 부의 당당함이 세상을 이긴다’ 등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전해졌으면 하는 고전의 명구를 물었다. 그는 맹자의 가르침 가운데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는 것’의 중요성을 담은 문구를 소개했다. 맹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유계견방죽 지구지 유방심이부지구 학문지도 무타 구기방심 이이(人有雞犬放則知球之/ 有放心而不知球/ 學問之道 無他/ 求其放心而已矣). 즉 ‘사람이 닭과 개를 잃어버리면 찾을 줄을 알되 마음을 잃고서는 찾을 줄을 모르는데 학문하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사람으로서 그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가는 길이다’ 라는 의미지요.” 한편 책 발간을 기념하는 출판기념회가 오는 30일(오후 2시) 광주향교 유림회관 2층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난해 광주북구문화센터에서 선보인 ‘기베스, 베토벤과 가을을 걷다’ 공연. <기베스오케스트라 제공>

음악으로 떠나는 ‘8월의 프라하’

광주 기베스오케스트라 모차르트 교향곡 31일 광주예술의전당

모차르트 교향곡 38번 ‘프라하’는 프라하에서 초연되면서 동명의 부제가 붙은 작품이다. 모차르트 자신에게 보내준 관객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마음을 담아 작곡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지오코소 베누스토오케스트라(광주 기베스오케스트라·회장 임대원)가 제14회 정기연주회 ‘모차르트 프라하 교향곡, 기베스가 초대하는 8월의 프라하 여행’을 펼친다. 오는 31일 오후 7시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오케스트라 선율에 클라리네티스트 강태호, 피아니스트 나소리가 협연할 예정이다. 모차르트 ‘오페라 후궁으로부터 도주 서곡’을 시작으로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 OST인 ‘클라리넷 협주곡 가장조 2,3악장’이 울려 퍼진다. 이어지는 피아노 협주곡 다장조 2,3악장’은 영화 ‘엘비라 마디간’ 전편에 흐르는 아름다운 선율로 알려진 곡이다. ‘교향곡 38번 프라하’를 비롯해 영화 반지의제왕 OST ‘THE LORD OF THE RINGS’는 휘트니의 작품이다.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웅장한 사운

드와 서정적인 멜로디가 연주회 대미를 장식한다. 지휘봉을 잡는 강재진(상임지휘자)은 경희대 기악과,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바이올린 전공) 및 폴란드 쇼팽음악원 석사, 모스크바 국립문화예술대학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전남대, 조선대 대학원 등에서 외래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전남과학대 음악과 겸임교수를 맡으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협연자 강태호(클라리넷)는 전남대 음악교육과에 재학 중이다. 조선대 음악교육과를 졸업한 나소리(피아노)는 2019년 한·중 청소년 교류음악회 광주공연 등에서 이름을 알렸다. 강재진 지휘자는 “지난해 정기연주회는 베토벤의 작품들로 채웠지만 올해는 모차르트의 곡들을 들려줄 예정이다”며 “두 음악가는 음악사적으로 스타일, 작법 등에서 상이해 비교 감상하는 묘미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꼭두각시들의 동화 같은 이야기

광주예술의전당 국악상설 ‘이상한 나라의 꼭두’ 9월1일~10월27일

잔소리만 하는 엄마가 못마땅한 이수는 우연히 토끼를 따라가다 신비한 ‘꼭두 나라’에 도착한다. 문지기 ‘장승 꼭두’ 부터 최고 미녀 ‘장미 꼭두’, 독재자 ‘여왕 꼭두’ 등 개성 넘치는 꼭두각시들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광주예술의전당(전당장 윤영문)이 국악상설 ‘이상한 나라의 꼭두’를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일요일(오후 5시) 총 9회 선보인다. 광주공연마루(서구 상무시만로 3)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를 원전으로 전통 꼭두문화를 결합한 창작 음악극이다. 예락을 비롯해 바오무용단 등이 출연할 예정이며 다양한 꼭두탈 분장을 볼 수 있다. 공연은 숙제를 하던 소녀 ‘이수’가 자신의 방에서 토끼를 쫓아가다 이상한 세계로 들어가는 1부 ‘이상한 나라’를 시작으로, 꼭두나라 문지기인 장승꼭두의 질문을 받고 낯선 공간을 탐험하는 2부

‘이상한 몸’으로 이어진다. 꽃꼭두에게 커져 버린 몸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법을 묻지만, 잡초라며 무시당하며 곤경에 빠지는 3부 ‘이상한 정원’도 흥미롭다. 집에 가고 싶어 하는 이수에게 꽃꼭두는 “여왕의 대회에서 우승하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어 모자 장수가 등장하는 4부 ‘이상한 가게’와 비석치기 대회로 여왕과 승패를 겨루는 5부 ‘이상한 여왕과 이상한 비석치기 대회’로 막을 내린다. 상설공연 이영희 담당자는 “이승과 저승의 안내자인 ‘꼭두’라는 전통문화를 고전 아동소설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에 접목한 공연”이라며 “중이 오브제, 미디어아트와 어우러지는 이번 작품이 관객 모두에게 유년시절의 순수한 동심을 떠올리게 할 것이다”고 했다. 무료 관람, 전당 홈페이지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극중 등장하는 꼭두나라의 문지기 ‘장승 꼭두’.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문학으로 강항 선생 선비정신 계승

31일까지 K-문예제전 작품 공모

영광 출신 수은 강항(1567-1618) 선생은 조선시대 일본에 성리학을 전파했으며 정유재란 당시 군량 수송과 의병 모집을 맡아 기여했다. 그러나 두 형과 왜군의 포로가 돼 일본에 끌려가 3년 여가 가까운 시간을 보냈다. 당시 강항 선생은 왜국의 동정을 기록한 ‘적중봉소’를 본국으로 보내 조선으로 하여금 왜국의 정세를 파악하게 했다. 또한 강항 선생이 귀국 후 쓴 저술서 ‘간양록’은 조선 선비의 기개와 성리학 전파의 의미 등을 담은 책이다. 강항 선생의 선비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2024년 K-문예제전 작품 공모’가 진행된다. 2024년 대한민국 K-문예제전 운영위원회(위원장 탁인석)는 오는 31일까지 문예작품을 공모한다. 부문은 산문, 수필, 시이며 강항정신, 강항의 저서(문적), 가정과 가족(선비의 절의 정신 가미)으로 정해 자유주제로 작성하면 된다. 산문과 수필은 초·중·고등학생(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대학부·일반부(200자 원고지 30매 내외)여야 하며 시 부문은 1인 3편 이상 접수해야 한



필사본 건거록(간양록). <영광군 홈페이지>

다.((우)57059 영광군 불갑면 강항로 101 (1층) 강항문예제전 담당자), 이메일 접수도 가능. 시상은 대상 1명(상금 50만원 및 상장), 최우수상 1명(상금 30만원 및 상장)이며 대회장상(우수상) 초등부 1명, 중등부 1명, 고등부 1명, 대학·일반부(각 부문별 상금 10만원 및 상장) 각 1명을 선발 시상할 예정이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9월 21일 오후 3시 영광예술의전당 1층 소공연장에서 개최 예정이며 수은강항선생기념사업회 홈페이지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240724-중-173103호

상무지구 BYC사거리 진료문의 | 062-381-3900

이제 광주스마일안과의원에서 시력을 개선하세요!

- 체계적인 진료시스템
- 풍부한 임상경험의 조용윤원장
-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안과



광주 스마일 안과
Smile Eye Clinic

스마일수술/라식/라섹
드림렌즈 / 노안라식
www.smile-eye.co.kr